

“벌써 25년... 인생의 반을 노래했네요” “6년 전 그 사기꾼 다시 돌아왔습니다”

tvN ‘플레이어2’ 다음달 3일 첫 방송... 송승헌 “스케일 커져”

가수 서영은 데뷔 25주년 콘서트

1993년 학생밴드로 음악 시작
‘혼자가 아닌 나’·‘눈의 꽃’ 등 히트
“사람들 인생에 내 노래 함께해 보람”
다음달 15일 서강대 메리홀

“여러분의 선곡 리스트에 제가 1순위가 아닌 것은 아는데, 그래도 20번째 안에는 제가 꼭 있을걸요? 하하.”

가수 서영은(사진)은 29일 인터뷰에서 “저는 늘 대중의 노래 리스트 안에 있는 사람”이라며 “사람들의 인생 순간순간마다 제 노래가 들려지고 있다는 건 제게도 큰 힘이 된다. 제 노래에는 그때그때의 순간을 가져다주는 힘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다음 달 15일 서울 마포구 서강대 메리홀에서 데뷔 25주년 기념 콘서트 ‘6월의 선물’을 앞둔 그녀는 “제 나이가 51세인데, 인생의 반을 노래한 셈”이라며 “이렇게 오래 노래할 수 있을지 몰랐는데, 신기하고 ‘오래 잘 버텨구나’ 하는 생각에 감사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지난 1998년 데뷔한 그녀는 차분하면서도 호소력 있는 목소리와 가창력을 앞세워 ‘혼자가 아닌 나’(드라마 ‘눈사람’ OST), ‘내 안의 그대’(드라마 ‘첫사랑’ OST), ‘눈의 꽃’(드라마 ‘미안하다 사랑한다’ OST), ‘너에게로 또다시’(원곡 변진섭) 등의 히트곡을 내며 사랑받았다.

특히 히트곡 가운데 드라마 OST와 리메이크곡이 많아 ‘OST의 여왕’ 혹은 ‘리메이크의 여왕’이라고도 불렸다.

대표곡 ‘혼자가 아닌 나’는 용기를 주는 가사와 포근한 멜로디로 20년이 넘게 노래방 인기곡으로 자리하고 있다.

“힘든 순간에 ‘혼자가 아닌 나’를 들었다는 분들이 많았어요. 제목 그대로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지 않았을까요. 아이러니하게 이 노래 속 화자는 사실 혼자예요. 그만큼 힘든 사람이 부르는 노래고, 그런 점이 공감을 자아냈다고 봐요.”

‘혼자가 아닌 나’와 ‘내 안의 그대’는 서영은이 짧은 명실상부한 자신의 베스트 곡이기도 하다. 그만큼 오래 사랑받고 있지만 발표 당시의 생각은 달랐다.

서영은은 “저는 사실 이 두 곡이 처음에는 제 색깔과 맞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며 “특히 ‘혼자가 아닌 나’는 무슨 애니메이션에 나올 법하게 ‘사방사방’한 노래여서 제 노래 목록에서 지우고 싶기까지 했다. 그런데 이 노래를 통해 많은 분이 제 이름을 알게 되어서 생각이 바뀌었다. 이 두 곡이 없었으면 지금껏 노래하지는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가 좋아하는 곡을 부르는 게 전부”는 아니라는 점을 깨달았다”고 덧붙였다.

생물학과 92학번인 그녀는 대학교 2학년 때부터 학생 밴드로 노래를 시작했다. 엘라 피츠제럴드를 좋아하던 그녀는 재즈로 음악에 발을 들였다.



차분하고 단아한 그의 목소리는 과하지 않지만 듣는 이의 마음을 충족하게 적신다. 하지만 1990~2000년대 당시 유행하던 알앤비(R&B) 장르처럼 화려한 기교가 나오지 않아 한때는 아쉬움도 느꼈단다.

서영은은 “저는 엘라 피츠제럴드의 따뜻한 목소리를 좋아했고, 저와는 굉장히 다르지만 그를 따라 하려 노력했다”며 “재즈를 할 때는 ‘내 옷이다’ 싶은 색깔을 찾기 어려웠는데, 가요를 하게 되면서 그 의문을 풀게 됐다”고 전했다.

지난 2006년 분수 언저리에 김진오 씨와 결혼한 그녀는 18년간 두바이에서 지내고 있다. 음악 활동을 할 때는 한국을 찾아 팬들을 만나는 식이다. 지난 2012년 아들을 얻어 ‘엄마이자 가수’로 바뀐 나날을 보내고 있다.

서영은은 “아이를 낳고 나서 처음 5년은 ‘엄마

로만 지냈고, 가수로서는 힘들었던 시기였다”며 “이제는 아이가 두바이에서 학교에 다니면서 훨씬 수월해졌다”고 말했다.

이어 “아이를 낳게 되면서 세상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졌고, 이해하지 못하던 것들도 보이기 시작했다”며 “세상이 약간 더 넓게 보이고 한 발짝 물러서 뒤에서 바라볼 수 있게 됐다. 아티스트로서도 많은 배움을 얻었다”고 덧붙였다.

그의 데뷔 25주년은 작년이지만, 기념 콘서트는 해를 넘기게 됐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몇 년간 공연이 ‘일주일’ 되면서 다시 ‘시공’을 거는 데 시간이 걸려서다.

서영은은 “이번 콘서트는 공연명처럼 선물을 드리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다”며 “저만 자축하는 게 아니라 팬들과 함께 25년을 함께 지켜온 것이라고 이야기해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1, 2회를 보신다면 끝까지 안 볼 수 없을 겁니다. 자신합니다.”

배우 송승헌(사진)은 지난 28일 온라인으로 열린 tvN 드라마 ‘플레이어2: 끈들의 전쟁’(이하 ‘플레이어2’) 제작발표회에서 “시즌2가 시즌1보다 분명 재밌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다음달 3일 처음 방송되는 ‘플레이어2’는 천재 사기꾼, 자타공인 최고의 해커, 천부적 운전수, 타고난 싸움꾼 등 각 분야에 뛰어난 재능을 가진 ‘선수’들의 통쾌한 복수극을 그린다. 시즌1은 2018년 OCN에서 방송되며 인기를 끌었다.

송승헌은 시즌1에 이어 시대 최고의 사기꾼이자 작전을 설계해 판을 짜는 강하리를 연기한다.

그는 “시즌1에서는 강하리가 아버지가 억울하게 돌아가신 뒤 ‘가진 자’들을 응징하러 나서는 모습이 담겼는데, 시즌2에는 돈 말고 복수를 하기 위해 모인 이들의 모습이 담겼다”고 차별점을 짚었다.

시즌2는 시즌1 이후 4년이 흐른 시점을 배경으로 한다. 몇 년 동안 온갖 위기를 함께 겪으며 가족 같은 사이가 된 ‘플레이어’들의 끈끈해진 케미(호흡)를 선보인다.

송승헌은 “드라마 내용 중에는 웃을 일이 많지 않은데, 멤버들과 티키타카가 좋아서 시즌 10까지 하자고 이야기했다”며 “이런 분위기를 드라마에서도 고스란히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각자 다 사연이 있고 아픔이 있는 캐릭터들이예요. 한명씩 놓고 보면 모자란 부분도 있어 보이는데, 이들이 모였을 때의 시너지가 굉장한 통쾌함을 줄 겁니다.”

시즌2에 새롭게 합류한 오연서는 남다른 카리스마를 지닌 주도면밀한 전략가 정수민 역을 맡는다.

오연서는 “제가 이제껏 연기한 모든 캐릭터 중 가장 화려한 역할”이라며 “마치 ‘보드게임’처럼 장면마다 다른 느낌을 주기 위해 고민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심각한 사건들이 전개되지만 (긴장감을 풀어주는) 웃긴 상황들이 함께 담길다. 코믹하면서도 마냥 가볍지는 않은 드라마”라고 작품을 소개했다.

이 밖에도 이시연과 태원석이 각각 해커와 싸움꾼 역으로 출연하고, 장규리는 운전 실력이 남다른 차제이를 연기한다.

연출을 맡은 소재현 감독은 “시즌1이 인기가 많아서 부담은 있었지만, 스케일도 키웠고 캐릭터 하나하나에 더 신경을 썼다”고 강조했다.

“tvN에 걸맞게 시원하게 만들었으니 기대해주세요. (웃음)” /연합뉴스

강동원 ‘설계자’ 박스오피스 1위

애매한 결말은 마이너스... 관객 평점 낮아

강동원(사진) 주연의 스릴러 ‘설계자’가 개봉일에 할리우드 영화 ‘퓨리오사: 매드맥스 사가’(이하 ‘퓨리오사’)를 제치고 박스오피스 정상에 올랐다.

30일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설계자’는 개봉일인 전날 12만4000여명(매출액 점유율 41.6%)이 관람해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했다. 이요섭 감독이 연출한 이 영화는 살인 정보를 받아 사람을 죽이고 단순 사고사로 위장하는 이들의 이야기다.

흥미를 끄는 소재와 강동원의 연기가 호평받는 분위기지만, 명확하게 떨어지지 않는 결말 등에 대한 부정적 반응도 만만치 않다. 실 관객 평가를 반영한 CGV 골든에그 지수도 62%로 낮은 수준이다.

지난 22일 개봉 이후 8일 연속으로 1위를 달렸던 조지 밀러 감독의 ‘퓨리오사’는 전날 6만2000여명(23.0%)의 관객을 모아 2위로 밀려났다. /연합뉴스



마동석 주연의 ‘범죄도시 4’(2만9000여명·10.2%)와 신혜선·변요한 주연의 ‘그녀가 죽었다’(2만8000여명·9.4%)가 그 뒤를 이었다. /연합뉴스

작은 만남 큰 기쁨! 친절과 정성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개업·성업 안내

광주일보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문의 업무국 ☎ 062.220-0551



꽃게랑 약선반찬 전집
광주 북구 운암1동 황계로 27-1
간장게장, 양념게장, 모듬전, 김치류전 등
계사음식, 반찬메뉴, 흥어무침, 추어탕
오리탕, 나물종류 등 사전예약 가능
☎ 010-2315-2058

금남로 사주 카페
금남로 4가 50번지(원각사 바로 옆)
궁합, 신수, 작명, 운수 판단
☎ 010-7495-1577

석당화랑
동구공동예술의거리
병풍, 액자, 족자, 표구일체고서화우품판매
대표 이석재 ☎ 062)222-3118

(주)아이기스 화진화장품
광주시 동구 금남로 203, 지산빌딩 2층
인마의자, 식품화장품, 마사지, 기계 개발
☎ 062)223-0177, 010-3642-7320

(주)대신수산물
광주시 동구 제봉로 194번길 14
각종 수산물 무역/유통
☎ 062)233-0067, 010-3634-7264

문화결혼상담소
북구 북동 242-4번지
초혼·재혼 상담
작명, 궁합, 풍수지리
☎ 062)529-0315, 010-3606-5632

박당화랑
광주 동구 공동 51-18번지(예술의거리)
한국화, 서양화매매 및 감정
대표 박환승 ☎ 062)222-6866

필스제화
동구 산수동 553-73(산수5거리 옛골다리쪽)
구두수선·남화·여화창 굽깔이
가방지퍼수선·염색·광택
☎ 010-4755-9294

인철(仁喆)익스프레스
북구 신안동 764-10번지
포장·일반이사, 화물운송
“저층에서 고층사다리 보유”
☎ 062)572-2323, 010-9509-4422

무크 광주세정점
광주시 서구 상무대로 773, 세정아울렛 1층 151호
심플하고 옛지있는 스타일의 가을신상품 출시
남·여화 20~40% 세일
(일부 품목은 제외)
☎ 062)370-9151

법무사 황영수 사무소
광주시 동구 지산로 78번길 13, 검철청담벼락빌
소송, 민사집행, 민사신청, 공탁, 가사, 부동산등기
상업등기 각종 법률무료상담
☎ 062)226-9966, 010-3002-0816

초대화랑
동구 공동54-2번지(예술의거리)
동양화, 서양화 전문판매점
대표 임해택 ☎ 062)222-2516

도명 명리심리연구소
광주 남구 봉선동 금호 2차 205동 203호
학업, 적성, 진로 상담/사주, 궁합, 택일 등
소장 박관용 ☎ 010-4573-9059
(광주교육대학 평생교육원 강사)

남도철학원
북구 전변우로 79번길 87(임동)
수강생 수시모집! 사주, 작명, 출생, 택일
명리비전으로 수강생 개인지도
☎ 062)522-9653, 010-8645-2254

송가네 반찬
광주시 남구 백운로 99번길 2
각종 반찬 주문
☎ 062)672-9809, 062)672-6376

다흥치마 한정식 전문
광주시 북구 독립로 251
한정식, 고풍어구이, 주물럭, 쌈밥, 갈치구이
☎ 062)233-9952, 010-4469-0360

작곡가김기범노래교실
광주 동구 계림동 331-4
(계림동로타리 옛 계림오거리입구 3층)
전자음원으로 직접 연주, 개인지도
조용하고 아늑한 분위기 방음 완비
☎ 062-225-4445, 010-3603-3064

光州日報